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결혼! 솔직히, 집안도 봐야 하는 거 아니예요?
광주지사 228-3222 DAKS club 닥스클럽(주)

제1776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5월 24일 (음력 4월 8일) 목요일

전남 쌀 수출길 보인다

강진농협 호평쌀 내달초 첫 인도네시아 수출
나주 동강농협·화순 동복농협 등 9곳도 추진

정부의 쌀 수출 허용 방침에 따라 전남 쌀의 첫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도내 한 수출업체가 강진농협의 '호평쌀'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협상을 진행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2~3주 안에 사상 첫 전남 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첫 수출 물량은 2~3t 정도로 예상된다.

물량이란 측면에서는 소규모이지만 전남 쌀의 해외진출 가능성은 많다. 최근 전남도가 쌀 수출 희망업체를 조사한 결과 나주 동강농협을 비롯해 이천산업, 화순 동복농협, 금호RPC, 장흥 월평농산, 고마정미소, 강진농협, 동촌산업, 월출산농협 등 모두 9개 업체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현재 시장조사도 벌이고 있다.

또 쌀이 생산되지 않는 러시아나 스위스 등 유럽인들을 상대로 쌀 수출을 추진중인 서울의 수출업체들이 수출 물량에 친환경·유기농 쌀인 전남 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출되는 전남 쌀의 주된 소비층은 우선 재외동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 쌀이 미국, 태국 등 주요 쌀 수출국에 비해 3~5배 비싸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외국 거주 동포의 국산 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수출을 통해 쌀 산업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최근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쌀 수출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치경기자 unipark@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날'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마음선원'을 찾은 불자들이 형형색색 연등 아래에서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합장을 올리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쌀 개방시대 구원투수 '한눈에 반한 쌀' 인기 비결은?

쌀눈 살린 도정, 밥맛·영양 잡았다

쌀 시장 개방을 맞고 있는 농업 위기 국면에서도 명품 브랜드 쌀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다. 전남 쌀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 품질과 인지도 면에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한눈에 반한 쌀'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농림부가 선정해온 '12대 우수브랜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포함된 데 이어 '전남쌀 베스트 10'에서도 5년 연속 최고 쌀의 반열에 올랐다.

특히 전남 쌀 해외진출 바람을 타고 옥천농협은 '한눈에 반한 쌀'의 수출을 모색, 또 하나의 성공신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눈에 반한 쌀'이 수년째 상종가를 때리면서 쌀 개방시대 '구원투수'로 부상한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찰지고 감미로운 밥맛 때문이다.

옥천농협은 '봉황벼' 품종을 선택, 농가와 계약재배를 거쳐 치밀한 생산지도와 목초액·키토산 등을 이용한 친환경영농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한눈에 반한 쌀'을 탄생시켰다.

임창석 옥천농협 상무는 "최첨단 도정설비로 쌀눈이 80% 이상 살아있도록 했으며 쌀부스러기와 다른 품종이 전혀 혼입되지 않는 완전미(Head Rice)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엄격한 과정을 거친 '한눈에 반한 쌀'로 지은 밥은 아미로스와 질소함량이 적고 마그네슘·칼슘·철 성분이 많은 데다 특히 아미로펙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찹쌀에 가까운 찰기를 낸다.

옥천농협은 10년새에 판매량이 10배이상 늘면서 지난해 13억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한눈에 반한 쌀'의 시중가는 현재 20kg에 6만9천원을 호가, 보통 쌀에 비해 2만~3만원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옥천농협 임창석 상무가 '한눈에 반한 쌀' 포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죄 판결 신문에 낸다"

광주지법 첫 내규 마련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23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판결 공시제도에 대한 내규를 제정,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 선고 후 즉시 법정에서 안내문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를 희망할 경우 즉석에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라는 선고를 하게 된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의사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적극적으로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기로 했다.

판결공시는 광주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 세로 6.8㎝의 크기로 판결 요지를 1회 게재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한편 광주지법의 무죄판결건수는 ▲2005년 178건 ▲2006년 213건 ▲올 1월~5월까지 79건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전남 가계대출 10조 육박

해마다 8,308억씩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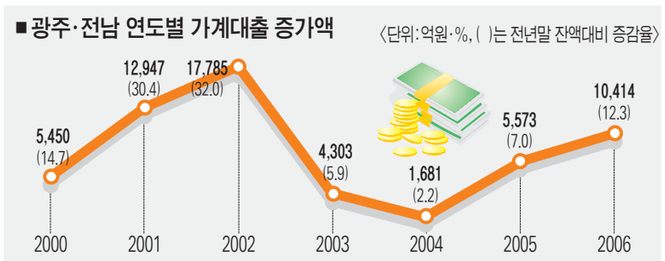
지난 7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연 평균 8천300억원꼴로 늘면서 총 가계대출 잔고가 9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가계대출 증가분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 비중은 2005년 68.4%에서 2006년 83.7%로 크게 늘어 최근 주택대출 금리 인상이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주택대출의 95%가 변동금리부 조건인데다 만기가 짧고 일시 상환방식이 많아 지역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타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내 11개 예금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광주·전남 예금은행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사이 가계대출은 연 평균 14.9%인 8천308억원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은 총 9조5천298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주 수완·진월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1년새 가계대출이 1조414억원 늘어, 지난 2002년 1조7천785억원 이후 4년만에 한해 증가액이 1조원을 넘었다.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주택대출의 만기는 3년~10년이 전체의 39.4%로 가장 많았고, 3년 이하 단기는 37.2%, 10년 초과 장기 대출은 23.2%로 집계됐다. /장필수기자 bungy@



새 복지장관 변재진씨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새 보건복지부장관에 변재진(54) 현 복지차관을 승진, 기용키로 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프로필 5면〉

박 수석은 "경제관료로서의 경륜 등을 바탕으로 임기말 복지부 당면 현안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담홍보실 1588-5051 ▶T.(061) 360-5000